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 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시편 19,2)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과 각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 년 반동안 진행된 성전 보수기금 모금을 마치며, 성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교우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신 따뜻한 정성과 기도로 마침내 목표했던 30 만 달러의 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성당을 봉헌하고 보수하는 거룩한 여정에 기꺼이 마음과 기도, 봉사를 보태어 주신 공동체 모든 분의 마음이 모였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현재 모인 기금으로 성전 보수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집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각 단체, 그리고 교우분들의 소중한 뜻을 영구히 기리고자 성당 뒤편에 감사 현판(Benefactors & Contributors Plaque)을 제작하여 봉헌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정성은 우리 성당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 공간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도 따뜻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교우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풍성한 자비와 축복이 교우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에디슨 한인성당 사목회 올림

대림 제 1주일

2026년
11월 29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오용운 토마스아퀴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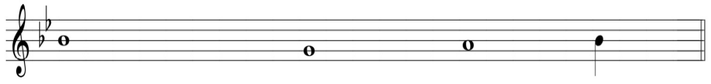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이사야서 63,16ㄹ-17.19ㄷㄹ; 64,2ㄴ-7

 # 화답송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4)



후렴.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 2독서 코린토 1서 1,3-9

 # 복음 환호송 시편 85(84),8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마르코 13,33-37

 # 성가 입당 91 봉헌 210, 218 성체 162, 180 파견 95

성 당 소 식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원준 – 가족
- 이종선(헤레나) – 최세레나&최미카엘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최강섭(요한) – 가족
- 이은례(데레사) – 박두선(요셉)
- 김삼식(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조명훈(요셉)의 영원한 안식 배수정(로사) – 최바실라
- 한석희(빈센트) – 가족
- Bruce A Goldman – Monica Goldman
- 박성희 김성례(마리안나) – 곽루시아
- 김상기(요셉) – 김정희(레지나)
-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 천상의 가정 Pr.

✷ **미사지향 (생미사)**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펠릭스 가정을 위해 – 가족
- 박애순(마리안나)의 건강 – 노스브런스윅구역
- 문세찬(다니엘)의 건강 – 황선주(요셉피나)
- 정영선(레아플로라)의 건강 – 야고보회, 신수정(크리스티나)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429(135명) 2차헌금.....$216
- 교무금.....$1,980

허정(11)	안을봉(9~12)	최완준(10~12)
안현정(11~12)	서경호(11~12)	성낙철(11~12)

- 감사금.....장수지($100)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씌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 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경당 옆 흡연 금지)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곽 율리안나 김정선(스텔라) 이 마이클 정윤석(토마스)

✷ **2차 헌금 (11/29)** **2차헌금이 없습니다.**

✷ **빵과 포도주 봉헌**

11/29 정대호 박혜정

✷ **빵과 포도주 봉헌 및 친교 봉사 구역별 일정**

12/20 먼로 1/17 노스에디슨 2/21 사우스브런스윅 3/21 에디슨
4/18썸머셋 5/17 올드브릿지 6/20 이스트브런스윅
7/18 피스브릿지 8/15 노스브런스윅 9/19 럿거스

✷ **2026년 대림 판공 성사 일정**

12/6: 10:20 ~ 11:20 본당 신부님 (고백소)
12/13: 10:10 ~ 11:20 손대혁 루치아노 신부님(고백소)
12/20: 10:20 ~ 11:20 본당 신부님(고백소)

✷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8) – ** 의무축일**

일시/장소: 12/8(화요일) 오전 9시, 오후 7시 / 대성당
강론: 한국어, 영어

✷ **대림 특강 안내**

12/13(주일) 미사 강론 중 특강 – 손대혁 루치아노 신부님

✷ **주님 성탄 대축일 일정**

12/24(목): 구유 예식 4pm – 전야(Vigil) 미사, 영어
8pm – 밤(Midnight) 미사, 한국어
12/25(금): 구유 예식 11:30am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2/31(목): 7pm, 강론: 한/영
1/1(금): 11:30am

✷ **성탄을 맞아 성당 주변 장식 라이트 설치에 봉사해 주실 분들은 사무장에게 알려주세요. 12월 5일(토)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일시/장소: 11월 29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반석회 모임**

일시/장소: 12월 5일(토요일) 낮 12시 / 친교실

✷ **요셉회 모임**

일시/장소: 12월 6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대회의실)

✷ **노스브런스윅 모임**

일시/장소: 12월 6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꾸리아 월례 회의**

일시/장소: 12월 13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대회의실)

✷ **노스에다슨 구역모임**

일시/장소: 12월 20일(주일) 미사후 / 루이지스 피자

말 씀 의 전 례

✷ **제 1독서** **이사야서 63,16ㄹ-17.19ㄷㄹ; 64,2ㄴ-7**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를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희 마음이 굳어져 당신을 경외할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당신 종들을 생각하시어, 당신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당신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당신 앞에서 뒤흔들렸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신이 자기를 고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운 일을 즐겨 하는 이들을,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서 저희가 늘 구원을 받았건만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짐과 같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어 저희의 죄악이 바람처럼 저희를 휩쓸어 갔습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경배드리는 자 없고 당신을 붙잡으려고 움직이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외면하시고 저희 죄악의 손에 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코린토 1서 1,3-9**

형제 여러분,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마르코 13,33-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레지오 교구 공지 / 기도문 / 기타

✝ **위령 성월 기도문 (시편 130(129))** ✝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

착하시고 어지신 예수님,
굽어보소서.
주님의 어전에 부복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신.망.애 삼덕의 뜨거운 정과,
범한 죄를 뉘우치는 참다운
통회와, 아울러 행실을 고치려는
굳은 뜻을 저희 마음속에
박아 주소서.

착하신 예수님,
일찍이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내 손발에 구멍을 내고
내 뼈를 전부 세어 보았도다" 한
예언자 다윗의 말을 생각하고,
깊은 감동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섯 상처를 바라보며
묵상하나이다.

(교황의 의향대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각 한 번)

✝ 위령 성월 기도문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

착하시고 어지신 예수님,
굽어보소서.
주님의 어전에 부복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신.망.애 삼덕의 뜨거운 정과,
범한 죄를 뉘우치는 참다운
통회와, 아울러 행실을 고치려는
굳은 뜻을 저희 마음속에
박아 주소서.

착하신 예수님,
일찍이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내 손발에 구멍을 내고
내 뼈를 전부 세어 보았도다" 한
예언자 다윗의 말을 생각하고,
깊은 감동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섯 상처를 바라보며
묵상하나이다.

(교황의 의향대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각 한 번)

✝ 위령 성월 기도문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

착하시고 어지신 예수님,
굽어보소서.
주님의 어전에 부복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신.망.애 삼덕의 뜨거운 정과,
범한 죄를 뉘우치는 참다운
통회와, 아울러 행실을 고치려는
굳은 뜻을 저희 마음속에
박아 주소서.

착하신 예수님,
일찍이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내 손발에 구멍을 내고
내 뼈를 전부 세어 보았도다" 한
예언자 다윗의 말을 생각하고,
깊은 감동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섯 상처를 바라보며
묵상하나이다.

(교황의 의향대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각 한 번)

✝ 위령 성월 기도문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

착하시고 어지신 예수님,
굽어보소서.
주님의 어전에 부복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신.망.애 삼덕의 뜨거운 정과,
범한 죄를 뉘우치는 참다운
통회와, 아울러 행실을 고치려는
굳은 뜻을 저희 마음속에
박아 주소서.

착하신 예수님,
일찍이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내 손발에 구멍을 내고
내 뼈를 전부 세어 보았도다" 한
예언자 다윗의 말을 생각하고,
깊은 감동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섯 상처를 바라보며
묵상하나이다.

(교황의 의향대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각 한 번)